

국내 최고품질 벼 품종 보급 박차

농진청, 외래 벼 품종 재배면적 2024년까지 1만ha 이내로 축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 벼 품종의 재배면적을 2024년까지 1만ha(헥타르)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 적합한 최고품질 벼 품종 선별과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 가운데 '추청벼', '고시히카리' 등 외래 품종 재배면적은 약 9%(65,974ha)로 집계됐는데, 외래 벼 품종은 '밥맛이 좋다'는 막연한 소비자의 인식으로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외래 벼 품종은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져 국내 벼 품종보다 쌀 품질이 낮다.

농진청은 외래품종을 대체할 벼 신 품종 개발을 위해 품종개발 단계부터 수요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SPP)'를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해들' 품종은 이천지역에서 재배됐던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리'를 완전 대체하며, '알찬벼'의 경우 '추청벼' 재배면적의 15%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은 국내 벼 품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최고 품질 벼 품종 개발과 생산·유통 공급 거점단지 조성, 지역 특화품종 선정을 위한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밥맛, 외관품질, 도정특성, 내병충성 등 4가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한 '삼광벼' '영호진미' 등 최고품질 벼 품종을 외래 품종 대체 보급품종으로 이용,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최고

품질 벼 품종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24.8%(181,013ha)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김제, 경기 이천 등에 프리미엄 쌀 생산·유통 전문 경영체 11곳을 중점 육성해 단지별 일관된 재배·관리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

다.

또한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우수한 벼 신 품종을 현장실증으로 재배 안정성을 확인하고 수확 후 소비자 평가를 통해 지역 특화품종으로 선정·재배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벼 지역특화 품종 보급 및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3개 사업 25개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 품종 이용 촉진 현장실증 연구과제로 7개 지역에서 다양한 벼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성남 원장은 "외래 벼 품종 재배 축소와 국내 육성 최고 품질 벼 재배 확대를 위해 생산자·지역농협·RPC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에 적합한 벼 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해외농업기술개발 착수 농촌진흥청은 6일 농촌진흥청 제2회의실에서 파키스탄 농업연구청(PARC)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착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파키스탄 간 농업기술 상호협력에 강화하고,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에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한다. 양해각서에서 명 후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오른쪽)과 몸타즈 자하르 발로흐 주한 파키스탄 대사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코로나19 여파 식량안보 공동대응 방안 논의

농식품부,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사전준비회의 참석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5일 제19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의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의 전에 국장급이 참석해 상정된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의장국인 브루나이와 한·중·일이 공동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공유 △APTERR(아세안+3 비상사태비축제) 및 AFSIS(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의제 등을 결정했다.

또한 KAPEX(Korea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 for Food Security)를 통한 한국의 농정성과 확산, AFOCO(Asian Forestry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한 산림협력, 초청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AFSIS를 통한 정보공유, 아시아 농식품기술협체제를 통한 연구개발 협력 등 분야별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회의에서 아세안 사무국은 지난 4.14일에 열린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영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인용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동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알라딘 릴로(Aladdin D. Rillo)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세안+3 정상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연대 강화

를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표명했으며, 비상사태 식량부족을 극복하고 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APTERR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오는 10월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 비대면 디지털경제 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와의 식량안보 분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아세안 회원국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도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고

전은 장학문화재단, 11년동안

장학금 9억9850만원 지급

지난 5일 재단 장학증서 전달식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5일 JB문화공간에서 '2020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10년 출범해 현재까지 2,128명의 학생들에게 9억 9,8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JB문화공간 성재환 대표,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수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5일 JB문화공간에서 '2020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대상인 도내 중·고등학생 200명의 학생들을 대표해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재단은 또 여성지휘자이자 게임머니 아이면서 게임음악을 오케스트라로 지휘하는 진솔 강사를 초청해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JB인문학 강좌를 함께 실시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

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정의 장학금이 학업 정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시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6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완주군 고산 청포마을을 방문해 농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여름휴가는 농촌으로'

전북농협, 휴가보내기 캠페인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6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완주군 고산 청포마을을 방문해 농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농촌관광객 급감 및 농촌경제의 침체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홍보행사에 함께 한 전주시 그라운드프론티어협회(회장 최순례) 회원들은 "휴가철을 맞아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다양한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팜스테이 마을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할인지원 사업으로 여행객은 할인혜택을 받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모두 심신이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청정지역 전북의 팜스테이 마을에서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장마 따른 특별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철술)은 지속적인 장마로 인해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670개소 및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7월까지 발생한 피해는 확산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임도관리원, 재해일자리 근무자 등 600여명을 투입,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요소를 제거하, 행동매뉴얼에 따른 대피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올해 전국적인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와 매우 유감이고 남부

지역도 7월 중에 피해가 있었던 만큼 안심할 수 없으며, 산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특별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해 소중한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은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고, 취약지역 이외에도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오거나 흩어 무너지고 낙석이 떨어지며, 바닷이 불이 나는 등도 경시면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면 산사태 발생 전조증상이나 주민들께서는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인 장마로 인해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670개소 및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주택관리보조 무지개 돌봄사원 채용

LH 전북본부, 올해 156명 도내 48개 단지서 내달 역할 수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지난해(68명)에 이어 올해 156명의 주택관리보조 무지개 돌봄사원을 채용했으며, 전북권 48개 단지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만60세 이상 LH임대주택 입주주민 대상으로 모집한 무지개 돌봄사원의 근무기간은 9~12월 약 4개월이며, LH 임대주택에서 환경정비·시설점검, 관리업무보조, 도서관운영지원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제공업무를 하루 4시간씩 주 5일간 근무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임대주택 뿐만 아

니라 매입임대 주택에도 돌봄사원을 배치해 외부 위생상태·위험요소·주차현황 점검, 주민불편 및 개선사항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입주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을 계속한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는 채용인원을 확대했다"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